

평생안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주)아토



▲ 문 상 영 사장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태양의 열기만큼이나 우리나라 현장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찾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수도권 최대의 산업 벨트, 시화공단내의 (주)아토(문상영 사장)를 찾았다.

■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경영철학으로 GOOD ATTO 추진

(주)아토는 1991년 9월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업체로 주요 생산품으로는 Gas Supply System, CVD장비, 스크러버 설비, 반디라이트 등이 있으며 2002년에는 순수한 (주)아토만의 기술로 충북 오창에 국내 제일의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장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외국의 우수기업들과 기술제휴 및 교류를 통해 양질의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이치를 추구하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GOOD ATTO(G(Golbal ATTO), O(One ATTO), O(Only ATTO), D(Delightful ATTO)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세계화에 발맞춰 「안전=품질」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주)아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등을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까지 실현시키고자 함



이다.

「안전=품질」이라는 문상영사장은 안전은 0순위, 혹은 0순위보다 먼저인 0순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며, 매출은 타협이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전에서 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편적이고 상식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사고시 이를 재현하여 훈련함으로써 동종재해의 재발을 막고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든든한 안전의 밑바탕에서 이룩된 무재해 2배수 달성

반도체 산업 특성상 안전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다.

잠깐의 방심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차후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가 일파만파로 퍼져 결국엔 건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세밀한 안전작업계획을 토대로 현장 안전작

업지침서 및 설비의 일일안전점검 Sheet 작성, 작업 지도서 및 점검사항 통지서 발행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최소화시킨다. 또한, 예방형 Management System 구축은 물론 사업부별 안전담당자 월별 안전회의, 현장개선제안제도, 아차사고보고제도, 협력업체와의 안전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안전교육자료, 각종 안전지침과 사고 사례 등을 게시·운영하고 있어 최신 안전정보를 전 직원이 보다 빠르고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안전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자로 잰 듯 하나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현장 실정에 맞는 여러 잣대를 적용하여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김설기과장은 말한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니다.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발로 뛰며 현장 담당자들의 동창을 유도하는 것이 (주)아토의 안전인 것이다.

이처럼 든든한 밑바탕으로 지난 5월 무재해 2배수 달성을 비롯하여 기업 내부의 안전뿐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의 지도점검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동종업계와의 차별화 및 고객사와의 신뢰성 구축에도 중점·관리하고 있다.






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

(주)아토의 직원들은 모두가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가스나 시설 등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사항을 기본으로, 보다 자세하고 세분화된 기술적인 안전까지 접목시켜 확실한 안전을 보장한다. 이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후 평가를 통한 개인인증도 잊지 않는다.

안전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받는 것만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듯이 각자 개인이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다.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평생 안전,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항상 배우고 실천 하려는 (주)아토의 자세에서 점차 발전적인 안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다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통해 ISO 14001, OHSAS 18001 등 대외적으로도 안전의 결실을 맺기 바란다. 

〈성호연기자〉

